

[2001 기도축제] 둘째 날 : 기도와 자유

라준석 목사 / 본문 : 행 16:16~34 / 페이지 수: 2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홀연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리더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끊어졌습니다. 간수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이 두려워 자기 몸을 상하려 할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수와 집안 식구, 더 나아가 그 집안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럽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시작이 된 빌립보교회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자유케 되는 것 뿐 아니라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 용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과 동시에 교회와 민족과 기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자유함'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은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졌으면 왜 그 문제가 터 졌는가 분석하지 마시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어리진 마음들이 사라지며 주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갖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으로부터 자유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의 막힌 벽을 보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때에 어느 순간 상황은 눈에 안 보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묶인 장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실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터지듯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 목사님을 묶고 있는 질병이 나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부흥의 시작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말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막 9:29), 야고보서 5장 14절~18절은 '병들었으면 기도하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그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으로 내버려두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규칙처럼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 온누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선교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